

도서관 운영 통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전국에 어린이도서관 설립중인 이인표 에스콰이어 회장

대학도서관을 비롯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은 많은 문제점에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과 뜻있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 꾸준한 개선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이른바 '어린이도서관'은 그 요란한 조기교육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4일 상계동을 출발로 10월 22일 부산, 그리고 12월 예정으로 광주에 어린이도서관을 계속 설립 중인 기업인이 있어 각별한 주목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국내 3대 제화업체 중의 하나를 이끌고 있는 이인표 회장.(69, (주)에스콰이어)

입지전적 인물로 지난 61년 창립 이래 시설 현대화와 신기술개발로 국내 제화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는 한편 최근에는 '토탈패션'의 선두주자로 부상하는 등 기업경영에 있어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회장은 이미 83년 사직동에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을 설립, 일찍이 기업의 대 사회적 역할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번 어린이도서관 설립계획도 '도서관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이회장의 평소 생각을 실현한 것으로, 현재 개관중인 곳 이외에도 성남·광주 등 91년까지 전국 20여군데에 설립예정이다. 장소선정에 있어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달동네와 낙도 등 불우지역 어린이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들 도서관은 철저한 사전준비작업과 내실 있는 운영방식으로 '기업체 도서관'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있는데,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도서관 이용률이다.



이인표 회장.

상계동 재개발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북부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일일 이용자가 250여명으로, 월평균 6천여명에 달한다. 35평 규모에 4천여권의 장서와 70석의 좌석을 갖춘 도서관은 사내 전용디자이너가 설계한 어린이용 서가를 특별생산·배치하는 등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개관 후 10년간을 목표로 한 책읽기와 연관된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과 신간도서지원은 이회장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 도서관 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독서카드발급·독서감상회모집·책속의 주인공에게 편지쓰기·인형극과 명작비디오 감상회 개최 등 일련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효과적인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로운



지난 5월4일 개관한 상계동 어린이도서관.

고유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현재 개관중인 도서관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이회장은, 이러한 '자잘한' 노력들이 "20년후에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한다.

부산에 개관한 구포어린이도서관도 상계동과 비슷한 규모와 시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형을 중시한 대형도서관이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도서관을, 필요한 곳에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회장의 지론이다. "책이 얼마나 헐었는가"라는 사실, 즉 도서관의 실제 이용률을 가장 중시한다는 것.

성급한 기업확장을 경계하고 기업인들의 모범적인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이회장은 실제 사업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한 인재관리로 소문이 나있다. "기업경영은 인간경영"이라는 것이 이회장의 창업이념으로 그동안 자체산업교육 대학을 비롯 통신대학을 설립·운영해왔을

뿐만 아니라 1만여명에 달하는 '대식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단 한번의 노사분규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어릴때 읽었던 카네기 전집이 지금까지도 기업경영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는 이회장은 "기업가는 단순한 장학금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기업의 사회적 이윤환원이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형태로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단발성'이 아닌 '백년대계'의 앞을 바라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이회장의 말은 古稀를 앞둔 '어른'의 인생철학의 깊이를 헤아리게 한다.

우리 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중국 연변과 소련 알마타에도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는 이회장은 아직 조사작업단계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연 기자

UFO에서 보낸 편지가 지금 서점에 !

지구인에게 띄우는 남성 우주인과 여성 우주인의 지혜

친구아란으로부터의 편지

정 법 엮음
신국판 202면 값 3,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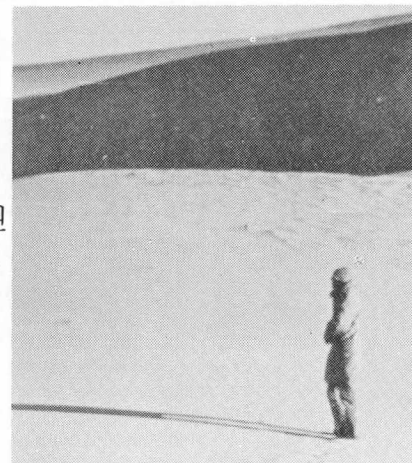
지구의 종말론에 대한 대반격 ! 21세기는 사랑과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

- 이 책은 한 수행자가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온 남성 우주인 아란으로부터 1990년 3월부터 5월까지 직접 받은 메시지입니다.
- 이 책으로써 요한계시록, 미륵의 시대, 노스트라다무스, 정감록 등을 우주적인 시각으로 이해하십시오.
- 우주문화를 강의하는 여성 우주인 콘텐샤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 최근 일본에서는 우주인들과의 교신에 의하여 우주선을 불러들여 T·V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 1월6일 일본방송 6번 채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720-1199



나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진실 이외에는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